



[뉴스] 삼성총수 일가 4년만에 함께 호암 추도식 02



Economy

|  |                                 |  |                                       |
|--|---------------------------------|--|---------------------------------------|
|  | 코스피<br>2547.42<br>(+1.78)       |  | 코스닥<br>859.94<br>(+8.20)              |
|  | 금리 (미국 3년)<br>0.955<br>(+0.006) |  | 환율 (원-달러)<br>1115.60<br>(+11.80)(19일) |

# 다세대·공실 활용 전세난 해소

(기존 공공임대)

## 공공임대 11만4100 가구 공급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2년까지 수도권에 7.1만 가구 서울 내 공공임대 3.5만 가구 공급 '공공전세' 2년내 1.8만 가구 공급 관광호텔 등 개조 1.3만 가구 확보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또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본격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100가구며, 수도권에는 7만1400가구가 나온다. 서울에만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5300가구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료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으로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임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

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로 매입약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다세대 주택 매입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

은 5400가구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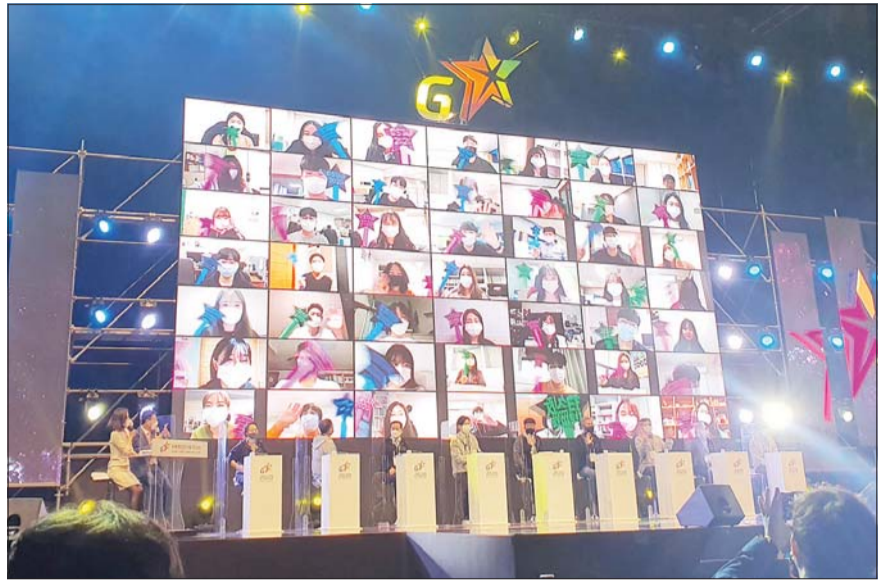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유형통합 임대의 거주 기간은 30년으로 정해졌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 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지만 유형통합은 계층에 상관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게 되면 임대료 할증이 이뤄져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오르게 될 뿐, 강제로 퇴거되지 않는다.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다른 공공분양과 섞이는 '소셜믹스'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매입임대 조기 입주도 추진해 내년 3분기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물량 8000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시킨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2000가구를 더해 총 6만2000가구가 늘어났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지스타2020' 개막식에서 '줌'으로 참가한 50여명의 참가자들. /김나인 기자

## 44개 대표 게임사 한자리 '지스타 2020' 온택트 개막

### 4일간 온라인 중심 '지스타TV' 방송 코로나19 방지 오프라인 참관 불허

19일 비바람이 몰아치는 부산 벡스코. 벡스코 전면에 이번 지스타 메인 스폰서를 맡은 위메이드의 '미르4'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무산될 줄만 알았던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2020'이 '온택트(On-tact)' 키워드를 내걸고 문을 열었다.

보통 개막일에는 벡스코 광장이 지스타 참관을 위해 물려든 인파로 분주했지만, 이번 지스타는 참관자를 받지 않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웅

했다. 부산 시내에서는 되레 기자에게 "올해 지스타가 열리나요?"라고 되묻는 시민들도 많았다.

이날 벡스코 1층에서 만난 거제대 컴퓨터정보학과 2학년 학생 7명들이 눈에 띄었지만, 지도교수와 함께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스마트팩토리 컨퍼런스'에 참가차 방문했다. 지스타 현장을 공급해하던 학생들은 "둘러보지 못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온라인의 열기는 뜨거웠다. 발열체크와 몸소독기를 거쳐 벡스코 내부 BTC관에 들어가보니 지난해까지 참가자들의 부스로 가득한 공간이 텅 비어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텅 빈 공간에는 커다란 포스터로 꾸며져 있었다. <4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

## 화이자, 코로나 백신 오늘 긴급승인 신청

다음달 중순 FDA 사용승인 전망 코로나 감염 예방효과 95% 달해

미국 제약기업인 화이자가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이번 주 미국에서 긴급사용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미국 정부의 백신 공급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르면 연내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엔테크의 최고경영자(CEO) 우구어 자힌은 18일(현지시간) 외신을 통해 화이자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의 긴급사용을 위한 서류를 오는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힌 CEO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다음달 중순에 FDA가 긴급사용을 승인하고, 다음달 하반기에는 유럽연합(EU) 당국이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화이자는 3상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 감염 예방효과가 9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종전 발표치인 90%보다 크게 상향조정된 수치다. 특히 화이자

는 코로나19 취약층으로,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예방효과가 9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이르면 몇 주 내 승인을 받아 연내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이제 안전하고 고도로 효과가 뛰어난 2개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이 백신들이 몇 주 안에 FDA 승인을 받고 배포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월 말까지는 이 2개 백신 약 4000만회 투여분이 FDA의 승인을 기다리는 채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취약한 미국인 약 2000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승인을 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배포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공식적 최종 승인은 긴급사용 승인이 떨어진 지 약 3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

## "금융·의료 등 비대면 유망분야 1.6조 투자"

### 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비대면, 경제주체 활동 연결 혁신 축" 2025년까지 스타트업 1000곳 발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중요성이 커진 비대면 8개 분야에 거액을 투자한다. <관련기사 2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 의료, 교육 등 8대 비대면 유망 분야에 대해 내년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비대면 경제는 공간·시간 등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혁신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한 비대면 유망 8대 분야는

범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00여종의 '올디지탈(All-Digital)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능형 정부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비대면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허용,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비대면 사업에 뛰어들 벤처를 지원하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곳을 발굴해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고, 총 9조원 규모의 비대면 기업 전용 융자·보증·투자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현재 10개 수준인 매출 500억원·수출 1000만달러 이상의 글로벌 혁신벤처기업을 2025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